

전남도-중소기업중앙회 선정 전남 강소기업

# LED·지능형관제시스템 최고 기술력

## (주)세오

(주)세오는 나주시 동수동에 본사를 두고 있다. 주력 사업은 LED(LED 가로등, LED 전광판, LED 발광장치)와 지능형관제시스템 등 영상분야다.

LED 분야에서는 횡단보도 LED 발광장치가 효과적이다. 야간에 녹색 LED 빛을 횡단보도에 비추므로 운전자들이 횡단보도와 보행자를 더욱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해주는 장치다. 광주 남구에 처음 설치한 이후 교통사고 예방과 도시 미관 효과를 인정받으면서 부산·대전·전주·정읍·무안 등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이 장치에 영상블랙박스를 융합해 횡단보도에 뺨소니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압축기술을 바탕으로 영상분야인 지능형관제시스템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보안감시와 원격모니터링에 핵심적인 영상보안 감시 및 IT 솔루션 기술로 재난과 재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에만 매출 성장률이 200%를 넘어 연 매출 100억원 시대를 여는 등 광주 광산분야 스타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광주지역 3개사와 함께 모스크바 인근 켈레노그라드 테크노파크 산업단지내에 한-러 합작 공장이 노라이트를 설립해 6000만 달러의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형각 대표는 "광주 광산업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이라는 자부심으로 기술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세오의 횡단보도 LED 발광장치.

# 동네의원·편의점 신용카드 수수료 폭탄

## 카드사들 22일부터 일반 가맹점 최대 20% 인상 통보

동네 의원과 약국, 편의점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조만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매출 2억원이 넘는 광주지역 유통업체에는 수수료가 0.2%포인트 인상됐다.

이는 신용카드사들이 손해보험사와 이동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에 이어 일반 가맹점에도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연매출 2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일부 동네 의원, 약국, 슈퍼마켓, 음식점, 제과점, 안경점, 편의점, 생활협동조합 등 일반 가맹점에 최대 20%의 수수료를 인상 방침을 전달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오는 22일부터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를 체계가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은 우대 수수료가 1.8%에서 1.5%로 낮아지지만 연매출 2억원~1000억원의 일반 가맹점은 수수료가 최고 2.7%까지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연매출 2억~5억원 수 준인 동네 의원 등이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됐다. 이는 전체 의원 2만5000여개 가운데 2만여개에 달한다. 수수료율은 현재 2.6%에서 2.7%로 늘어난다.

동네 의원들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데 수수료를 올리면 서민 부담이 늘어날까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동네 약국은 대부분 수수료가 인상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2.5% 수준이던 수수료가 2.5~2.6%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연매출이 5억원을 넘는 곳이 대부분이

준인 동네 의원 등이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됐다. 이는 전체 의원 2만5000여개 가운데 2만여개에 달한다. 수수료율은 현재 2.6%에서 2.7%로 늘어난다.

동네 의원들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데 수수료를 올리면 서민 부담이 늘어날까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동네 약국은 대부분 수수료가 인상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2.5% 수준이던 수수료가 2.5~2.6%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연매출이 5억원을 넘는 곳이 대부분이

로 수수료를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연매출 2억원이 넘는 광주지역 유통업체도 100곳에도 0.2%포인트 이상 높은 2.0~2.7%로 수수료율을 올리겠다는 통지가 왔다. 대형할인점에는 1.5%에서 1.7~1.9%로 수수료율을 소폭 올리면서 중소형 유통업체에만 '수수료 폭탄'을 때렸다고 성토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광주지부 관계자는 "회원들이 최근 카드수수료 협상단을 꾸려 각 카드사에 수수료 협상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며 "이같은 수수료율을 책정한 근거가 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신세계 점장 이취임식 (주)광주신세계 점장 이·취임식이 6일 백화점 대교육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신열 신임 광주신세계 점장, 조창현 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정재영 신세계 대표이사, 광주신세계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 영암마트 창립 20돌 오늘 DJ센터서 'Y-MART 송년의 밤'

향토 유통업체인 'Y-MART(영암마트·대표 김성진)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7일 오후 7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Y-MART 송년의 밤' 갖는다.

'Y-MART'는 1992년 11월 30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영암마트로 출발, 20년 만에 광주, 전남·북에 가맹점만 50곳, 종업원 수만 1000여명에 달하는 중대형 유통업체로 성장했다.

내년부터는 서울·경기지역에 점포도 출점할 계획이다. 또 물류센터 완공을 비롯해 'Y-MART' 표준화 작업도 완료할 계획이다. 'Y-MART'는 사랑·행복·나눔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지역사회에 다양한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50·60대 종업원수만 50여명으로 은퇴한 실버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본점(북구 용봉동)에 다문화 여성도 근무하고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영암마트로 출발, 20년 만에 광주, 전남·북에 가맹점만 50곳, 종업원 수만 1000여명에 달하는 중대형 유통업체로 성장했다.

김성진 Y-MART 대표는 "지역에서 번듯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향토기업의 책임"이라며 "지역 내 우수 농·수·축산물 및 특산물 홍보는 물론 판로개척에도 앞장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수문·펌프 특허 20여개... 해외진출 확대

## (주)우승산업

1995년에 설립된 (주)우승산업은 수문·펌프·권양기·제진기 등 수처리 관련 기계를 전문으로 제작하고 있다. 직원 30여명에 연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는 알짜 기업이다.

우승산업의 수문과 펌프는 남다르다. 펌프계이트는 수문에 펌프를 일체형으로 장착해 별도의 유수지와 배수펌프장이 필요없이 상승침수지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배수시설이다.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저감 신기술로 지정됐다.

배수용 수중펌프는 빗물펌프장의 배수용, 홍수나 폭우의 수방대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이물질이 용이하게 배출시켜 펌프의 고장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효율을 높였다. 최근 재난에 효력을 치른 인도네시아 등 해외 진출의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한들식 수문권양기는 하천이나 수로에 설치된 수문을 개폐하는 기계장치로 정확



우승산업의 펌프계이트.

한 동력전달기술이 구현됐다. 우승산업은 자체 기술연구소를 통해 20여건이 넘는 특허와 실용신안을 등록하고 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획득하면서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상황임에도 국내 최대 수준의 수문시험장과 펌프시험장을 설치해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신기술 실용화 공로를 인정받아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장경남 대표는 "품질 제일·책임 시공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술 선진화를 이뤄 앞으로도 안전하고 맑은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SK텔레콤 오늘부터 아이폰5 개통

SK텔레콤은 7일부터 아이폰5의 공식 개통을 시작했다.

SK텔레콤은 공식 출시에 앞서 지난 30일부터 전국 대리점에서 예약 가입을 받았으며, 이들을 우선적으로 개통해 준다. 또 이들에게 7700원 상당의 나노유심을 무상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온라인 예약가입자에게 모두 아이폰5를 제공한 뒤 오프라인 예약자와 예약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아이폰5를 판매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기존에 아이폰을 사용 중인 고객과 초고속인터넷 등을 추가로 개통하는 고객을 추가로 특별 혜택이 제공한다. 또 선착순 3000여명에게는 사은품을 증정한다. 이 회사는 아이폰5 출시에 맞춰 내

비게이션 서비스 T맵의 최신버전(T맵 4.0)을 아이폰용으로 선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46.62 (+2.58)
▼ 코스닥지수	488.03 (-8.47)
▼ 금리 (국고채 3년)	2.83% (-0.03)
▲ 원·달러 환율	1083.00원 (+1.5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 공정위 올 기업 과징금 작년 2배 9138억 징수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거둬들였다. 더구나 내년 조사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기업들에서 9138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징수액(3473억원)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액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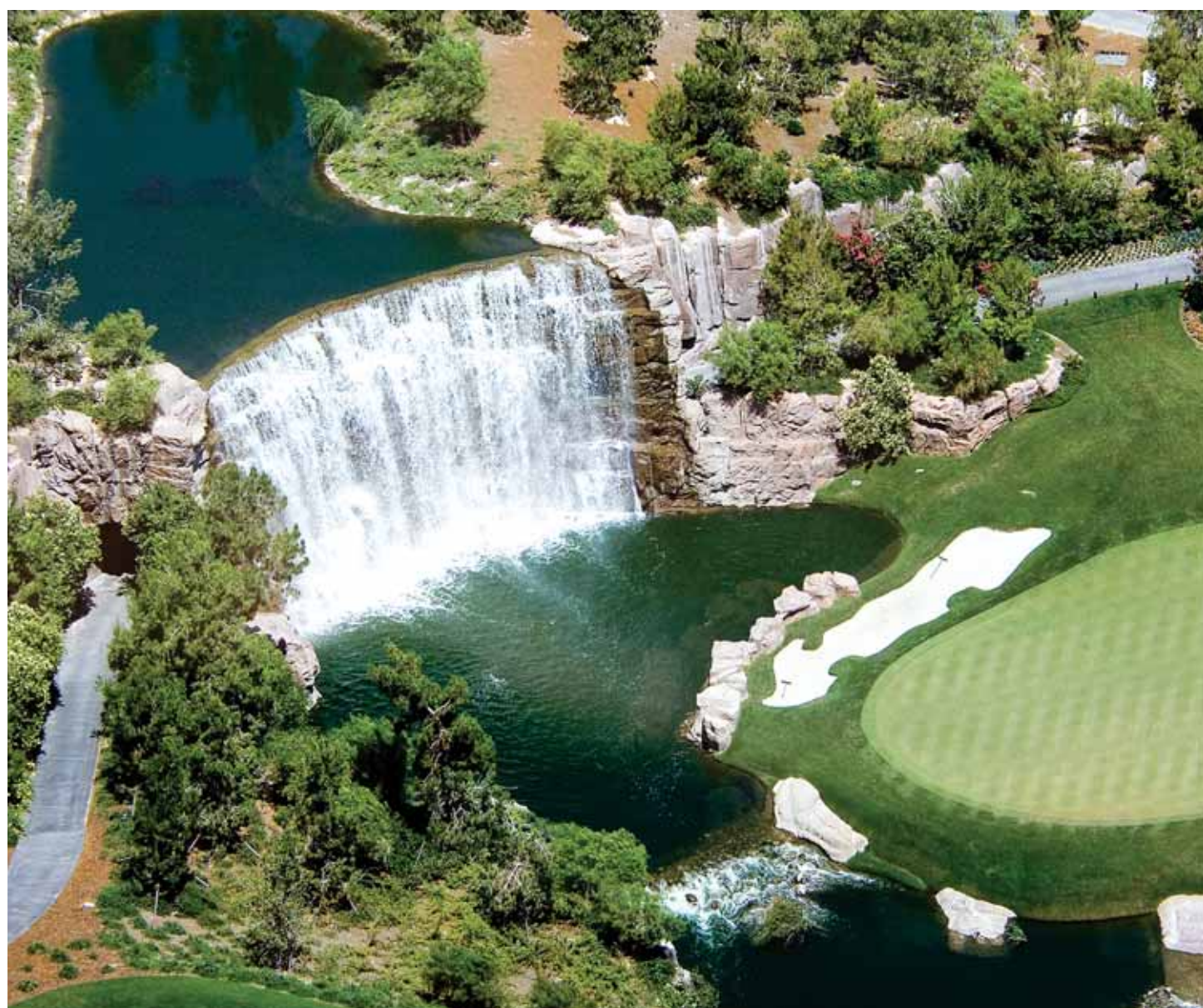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적인 정책 방향을 내세웠던 집권 초기에는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액이 그리 많지 않았

다. 2008년에 1311억원, 2009년 1108억원에 불과했다.

집권 중반에 접어들면서 '공정사회'로 정책 기조가 바뀌자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액도 크게 늘어났다. 2010년 5074억원, 지난해 3473억원에 이어 올해는 1조원에 육박한 과징금을 거둬들였다.

올해 공정위가 목표로 했던 4029억원의 두 배 이상을 거둬들이 '과징금 대박'이었다.

/연합뉴스



# 금호아시아나회원권 하나로 골프, 리조트, 스파, 요트를... 5년 만기 보증금 반환 골프멤버십 탄생

레저업계에 큰 "멀티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현대에는 골프뿐만 아니라 각종 콘도 등 혜택을 모은 실속형 상품이 대세인 것이다. 국내 굴지 재벌기업인 금호아시아나 그룹금호리조트가 골프 마니아를 위해 금호그룹 프리미엄 V골프리조트멤버십을 출시해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미 5년 전 회원의 신뢰와 믿음으로 골프멤버십 회원권을 전액 반환해주었고 재차 고객의 성원으로 2차로 골프 상품을 출시했다. 국내 골프멤버십 중에서 회원 수가 가장 많고 혜택이 뛰어나고 동시에 안전성, 수익성, 보장성을 갖춘 자타가 공인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골프멤버십 1위 회사다. 10위 안에 드는 그룹 이미지답게 신뢰성과 안전성을 필두로 고객 만족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최대로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골프장 정회원 대우를 실시했고, 18년간 회원들에게 신뢰와 믿음으로 약속을 지켰으며, 시중 유사 상품과 달리 고객 편의와 혜택 등 고객 만족 서비스로 차별화에 나섰다.

이용 혜택은 첫째, 수도권 상위 골프장 10곳 및 전라도 9곳, 경상도 7곳, 제주도 7곳 골프장을 연 32회 명문골프장 주중회원으로 대우해준다. 또한 회원의 날을 개최해 회원초청을 월1회, 명문골프장에서 실시한다. 둘째, 여가 선용·가족 여행으로 전국 14곳 지역 및 체인 리조트를 매년 30박 회원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연중 내내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지역 리조트

는 첫 회 무료 이용권 5매를 제공한다. 겨울철 스키 이용시 스키장 3곳 양산에덴밸리, 현대선유리조트, 엘리시안강촌리조트를 회원자격으로 이용한다. 셋째, 국내 아시아나항공 이용 시 5년간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렌터카 이용 시 금호 렌터카를 최대 30%~50% 할인 받을 수 있다.

넷째, 휴식과 테마시설로 심신을 말끔히 풀어주는 스파 이용으로, 아산, 화순, 제주도 3곳의 직영 스파 시설 및 총무마리나 요트도 20~4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상 4가지 다양한 혜택으로 상상 그 이상의 고객 만족을 위해 상품이 출시되었다. 다시 말하면 국내 굴지 기업답게 신뢰, 안정, 믿음성으로 고객 요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골프멤버십 상품은 패밀러, 스위트가 있으며 입회기간은 5년이다. 5년 후 보증금은 반환하며, 연장을 원할 경우 동일조건으로 재연장도 해주며, 특히 리조트에 대한 지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더 보증금 안전보장에 전혀 염려없다.

골프장 난립으로 회원권의 투자매력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회원권 하나로 골프, 리조트, 스파, 요트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금호 프리미엄 골프멤버십 회원권에 골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모집은 회사보유분 150구좌로 선착순 한정 최종 마감하여 푸짐한 혜택도 주어진다.

회원문의 02-501-1787 (24시간 상담시스템)